

근대이행기 일본의 官撰地圖로 본 영토인식 변화에 대한 고찰

신동규*

eastasia@dau.ac.kr

Contents

- I. 머리말
- II. 17-18세기 官撰地圖와 ‘三島領土觀’
- III. 19세기 『伊能圖』와 ‘三島領土觀’의 붕괴
- IV. 메이지(明治)시대 ‘四島領土觀’의 정착
- V. 맺음말

Abstract

本稿は江戸時代から明治時代に至るまでの日本の官撰地圖を素材にして、日本の領土認識の変化を前近代の「三島領土觀」の崩壊と「四島領土觀」の定着という観点から糾明したものである。その論点を要約すれば、第一は、江戸幕府が製作した17-18世紀の官撰地圖(『寛永日本図』・『正保日本図』・『元禄日本図』・『享保日本図』)に見える領土認識は、基本的に九州・四国・本州及びそれらの附属島嶼という「三島領土觀」に基づいていたが、次第に蝦夷地を含めた「四島領土觀」へと変化する過渡期的な位置を占めているということである。第二は、伊能忠敬の『伊能図』は日本最初の実測地圖でもあるが、この地圖の製作によって、18世紀から日本には蝦夷地(現、北海道)が含まれた「四島領土觀」が出現し、これによって伝統的な「三島領土觀」は崩壊しはじめたということであり、第三は、江戸幕府最後の地圖として1867年に刊行された『官板実測日本地圖』は『伊能図』と共に日本の「三島領土觀」の崩壊に終止符を打った地圖であって、特に日本の領土膨脹と紛争の序曲のような地圖であったと評価できる。第四は、江戸幕府の崩壊とともに前近代の領土認識としての「三島領土觀」は、明治政府の成立と共に「四島領土觀」に変化し、これに伴って前近代の地圖とは完全に異なる新しい形式の地圖が製作され始めたという点である。換言すれば、近代以後の日本は地圖に、中央には九州・四国・本州、上段には北海道と千島列島、下段には琉球列島を位置させることで、九州・四国・本州・北海道及びこれら附属島嶼の膨脹を基盤にした「

* 동아대학교 국제학부 일본학과 조교수. 일본근세사 전공.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인문사회분야 : KRF-2007-358-A00005)

四島領土觀』を強化させて行ったのである。

Key Words : 官撰地圖, 私撰地圖, 三島領土觀, 四島領土觀, 伊能圖, 國繪圖, 行基圖
(government published maps, private published maps, Three Islands territory view, Four Islands territory view, Inouzu, Kuniezu, Gyokizu).

I. 序論

본고에서는 근세 에도시대(江戸時代)부터 근대 메이지(明治)시대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官撰地圖¹⁾를 소재로 삼아 일본의 영토인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전근대 시기에 일본의 私撰地圖를 보면 중세 이래 고착되어 온 九州(九州)·本州(本州)·四國(四國)라는 전통적 영토인식, 즉 ‘三島領土觀’이 정착되어 있었다.²⁾ 특히, 이러한 사찬지도의 ‘삼도영토관’은 메이지 시대에 들어와서도 민간에 그대로 존속되고 있기도 했지만, 관찬지도의 경우는 19세기 초를 전후한 시기부터 지리인식의 확대와 함께 예조치(蝦夷地)가 일본의 국가 경계인식 속에 포함되는 등의 영토인식의 변화를 거듭한다. 여기서 말하는 국가의 경계라는 것에 대해 브루스 버튼은 ‘정치적 경계’와 ‘사회적 경계’로 구분되며, 국경이라는 정치적 경계가 민족적·문화적인 경계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아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³⁾고 하지만, 본고에서는 관찬지도를 소재로 한정하여 공간적 경계에 따른 영토인식의 변화를 대상으로 고찰하려고 한다.

일본의 관찬지도는 가와무라 히로타다(川村博忠)의 연구에 의하면, 738년 쇼무(聖武) 천황 때에 “천하의 諸國으로 하여금 國郡의 지도를 만들어 바치게 하였다.”라는 『日本書紀』의 기록으로부터 그 시작을 확인할 수 있다.⁴⁾ 니시오카 도라노스케(西岡虎之助)는 상기의 고대 이래 작성된 國郡圖와 田圖 등을 포함

1) 본고에서 관찬지도는 국가권력, 즉 근세에는 에도막부(江戸幕府), 근대에 들어와서는 메이지 정부를 의미하며, 이들 국가권력에 의해 작성되거나, 이들 권력기관이나 명령에 의해 작성된 지도를 의미한다.

2) 申東珪(2012 출판예정) 『일본의 私撰地圖로 본 전근대 ‘三島領土觀’에 대한 고찰』 『전근대 일본의 영토인식』, 동북아역사재단.

3) ブルース・バートン(2000) 『日本の『境界』-前近代の國家・民族・文化』 青木書店, pp.3-9.

4) 川村博忠(1990) 『國繪圖』 吉川弘文館, pp.5-6.

해 1580년 이전까지 현존하는 고지도가 약 200점 정도라고 하는데,⁵⁾ 이때까지의 고지도 중에 관찬지도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지 현재로서는 명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관찬지도의 제작이 국가권력의 세금수입을 위한 기본 자료인 동시에 지방통치에 대한 필요성이 있었다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다만, 고대의 중앙집권적인 정치형태에서 중세의 봉건제국가로 이행하면서 행정단위로서의 구분은 유명무실해졌고, 정치적 상황이라는 측면에서도 국가의식이 약화되어 國郡圖 등을 비롯한 관찬지도의 제작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중세 이후부터는 莊園 영내의 촌락과 경지 등을 묘사한 莊園繪圖나 장원의 경계 다툼에 관련된 堺相論圖 등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었다.⁶⁾

한편, 근세 에도시대에 들어와서 통일국가로의 이행과 檢地에 의해 토지면적당 생산량에 비례해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石高制의 시행에 의해 국가권력에 의한 관찬지도 편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에도막부(江戶幕府)는 諸大名들에게 자신의 영지에 대한 지도제작을 명하여 막부에 제출하도록 했는데, 그것이 바로 國繪圖이다. 國繪圖는 에도시대에 5차례에 걸쳐 편찬되었는데, 이 지도는 일본 전체의 모습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全圖의 형태가 아니며, 전도의 형태로 작성된 것은 각 藩에서 제출한 國繪圖를 종합하여 작성된 이른바 『日本圖』(일종의 일본전도로서 日本總圖라고도 함)이다. 國繪圖에 대해서는 후술하겠지만 에도시대에 4차례가 작성되었는데, 이러한 國繪圖를 포함한 관찬지도를 가지고 일본의 영토인식의 변화를 고찰한 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근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에 당시 국가권력의 영토인식과 그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관찬지도로 편찬된 다수의 『日本圖』와 메이지 이후 작성된 日本全圖 등의 고지도⁷⁾를 소재로 삼아 다음의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5) 메アリ・エリザベス・ベリ(2001) 『統一権力と地圖作成』, 黒田日出男/メアリ・エリザベス・ベリ/杉本史子編 『地圖と繪圖と政治文化史』 東京大学出版会, p.145.; 西岡虎之助(1976・77) 『日本莊園繪圖集成(上・下)』 東京堂, 참조.

6) 川村博忠(1990), 앞의 논문, pp.5-6.

7) 본고에서 참조한 관찬지도가 수록된 주요 지도집은 다음과 같다. 海野一隆/織田武雄/室賀信夫/中村拓(1972) 『日本古地圖大成』 講談社. 이후 『日本古地圖大成』으로 약칭); 神奈川県立博物館編(1997) 『世界のかたち日本のかたち-渡邊紳一郎古地圖コレクションを中心に-』 神奈川県立博物館, 1997; 神戸市立博物館編(1994) 『古地圖セレクション-神戸市立博物館』 神戸

고찰해 보고자 한다.

첫째는 근세 17세기부터 18세기까지 에도막부에 의해 제작된 日本圖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고, 또 사찬지도에 보였던 ‘삼도영토관’과 어떠한 차이를 보이며 큐슈, 시코쿠, 혼슈, 에조치라는 ‘사도영토관’으로의 동요를 초래했는가 고찰해 보고자 한다. 둘째는 막부의 명령을 받아 1800년부터 작성되기 시작한 일본 최초의 실측지도로서 이노우 다다타카(伊能忠敬)의 『伊能圖』와 이 지도의 영향을 받은 고지도들을 토대로 전통적인 ‘삼도영토관’의 붕괴와 ‘사도영토관’의 태두를 살펴보는 것이고, 셋째는 메이지시대 이후 발간된 관찬지도를 통해서 ‘사도영토관’이 어떠한 형태로 정착 내지는 고착되어 갔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II. 17-18세기 官撰地圖와 ‘三島領土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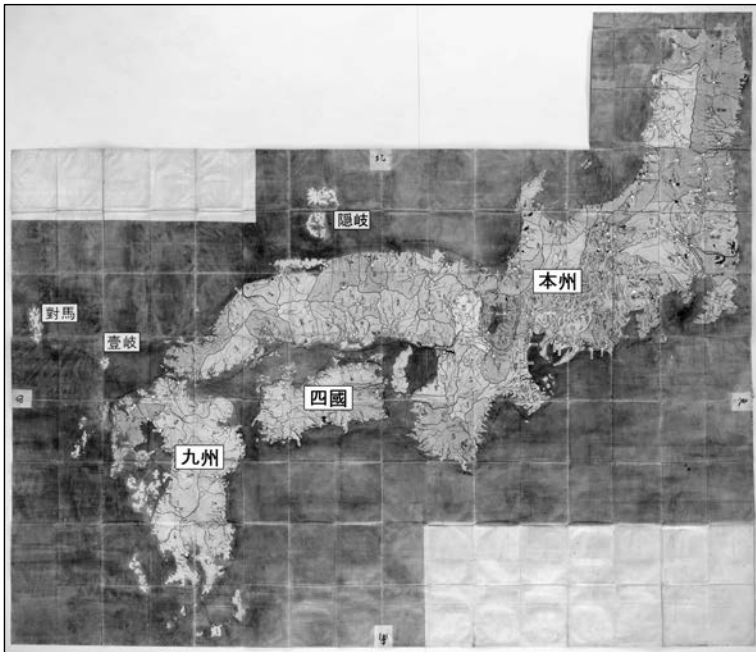
근세 에도막부시기에 들어와서 막부는 다이묘(大名)들에게 쿠니(國=藩) 단위의 지도인 國繪圖와 성곽을 묘사한 城繪圖의 편찬사업을 지시하였는데, 國繪圖를 수납하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당시 막부의 영토인식을 명확히 살펴볼 수 있는 일본도까지도 집성하였다. 원래 國繪圖 편찬은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가 1605년 전국 諸大名의 領地·寺社領에 대한 분포 및 石高 조사를 위해 시작되었는데, 慶長期(1596-1615), 正保期(1645-1648), 元祿期(1688-1703年), 天保期(1830-1843) 등 총 4회에 걸쳐 國繪圖 편찬사업이 실시되었고, 여기에 1633년(寬永10년)의 巡見使의 국내 순행 당시 上使에 의해 만들어진 國繪圖를

市スポーツ教育公社；伊能忠敬研究会編(1998) 『忠敬と伊能圖』 [株]アワ・ブラング；東京國立博物館編(2003) 『江戸開幕400年記念特別展-伊能忠敬と日本圖』 東京國立博物館. 또한, 디지털 고지도 자료도 참조하였는데, 본고에서 이용한 고지도의 소장처 URL은 다음과 같다.

- 國立國會圖書館デジタル化ア資料, <http://dl.ndl.go.jp>
- 國立公文書館デジタルアーカイブ(繪圖), <http://www.digital.archives.go.jp>
- 九州大学デジタルアーカイブ, <http://record.museum.kyushu-u.ac.jp/>
- 京都大学圖書館古地圖コレクション, <http://edb.kulib.kyoto-u.ac.jp/exhibit/index.html>
- 筑波大学附属圖書館古地圖DB, <http://www.tulips.tsukuba.ac.jp/pub/tree/kochizu.html>
- 東京國立博物館情報アーカイブ, <http://webarchives.tnm.jp/pages/oldmaps/index.html>
- 明治大学圖書館蘆田文庫古地圖コレクション, <http://www.lib.meiji.ac.jp/ashida/index.html>

포함하면 총 5회에 이른다.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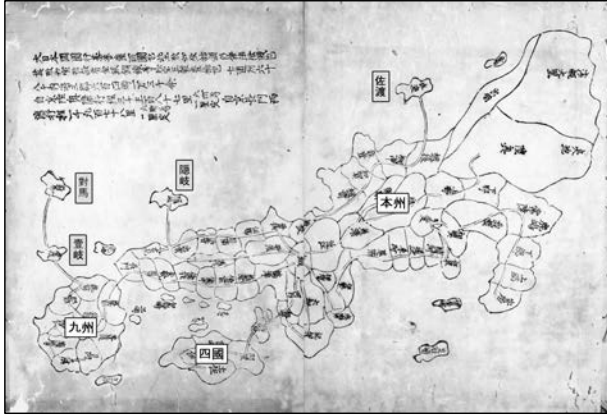
이 5회의 國繪圖 편찬사업 중에서 正保·元祿期를 포함해 寬永期(1624-1645), 享保期(1716-1735) 때에 일본도가 제작되었으며(幕末期에도 『伊能圖』를 비롯한 관찬지도가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후술), 이 중에서 享保期, 즉 1719년의 일본도는 8대 쇼군 도쿠가와 요시무네(德川吉宗)의 지시에 의해 편찬된 것으로 國繪圖는 제작되지 않았었다. 즉, 18세기까지 시대순으로 寬永期, 正保期, 元祿期, 享保期の 4차례에 걸친 일본도가 제작되었는데, 막부에 진상된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 사본이 이른바 『寬永日本圖』(1633·1638), 『正保日本圖』(17세기 중엽), 『元祿日本圖』(1702), 『享保日本圖』(1719)라는 명칭으로 4종이 남아 있다.



[지도 1] 寬永日本圖(日本國立國會圖書館 소장)

그러면, 우선 에도시대 초기에 작성된 『寬永日本圖』에 대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대표적인 것으로 우선 1633년에 巡見使가 작성한 『寬永日本圖』로 현재

8) 川村博忠(1990), 앞의 책, p.204.



[지도 2] 『拾芥抄』의 行基圖(早稻田大学圖書館 소장)



[지도 3] 行基菩薩說大日本國圖(國立歷史民俗博物館 소장)

佐賀縣立圖書館에 소장되어 있는 3매 구성의 『寬永日本圖』이며, 또 다른 하나는 일본의 국립國繪圖서관에 소장된 통칭 『慶長日本總圖』라는 고지도로서 명칭으로만 보면 慶長期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실은 1637년에 발생한 ‘시마바라(島原)·아마쿠사(天草)의 난’이 종결된 후, 군사적 위급 시에 대비할 목적으로 1638년에 만들어진 『寬永日本圖』이다. 이 두 지도는 거의 비슷한 형태이지만, 1633년에 만들어진 『寬永日本圖』가 巡見使의 국내 순행의 결과를 토대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1638년의 지도보다는 더욱 상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⁹⁾ 다만, 본고에서는 1633년의 佐賀縣立圖書館에 소장된 『寬永日本圖』는 3매 중에서 규슈지역의 1매만 가와무라(川村)의 저서 『江戸幕府の日本地圖』(50쪽)에

9) 川村博忠(1998) 『江戸初期日本總圖再考』 『人文地理』50, 人文地理学会, pp.2-12 ; 同(2010) 『江戸幕府の日本地圖』 吉川弘文館, pp.48-58 ; 川村博忠(1990), 앞의 책, pp.207-212.

수록된 지도로 보았을 뿐 전체의 고지도를 확인하지 못하여 國立國會圖書館 소장본인 「寛永日本圖」([지도 1] 참조)¹⁰⁾를 참조하도록 하겠다.

[지도 1]의 「寛永日本圖」의 축척은 國立國會圖書館의 해제에 의하면, 五分之一(1/259,200)로 작성되었는데, 城下名の 옆에는 성주와 그 지역의 石高가 작은 종으로 붙어 있어 당시 石高制에 의한 세금수납이 국가권력에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던가를 추측해볼 수 있다. 또한, 「寛永日本圖」는 현재의 실측지도와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데, 특히 각 지역 및 쿠니(國)의 경계와 하천·도로·항로의 표시가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다만, 본고에서 논제와 관련해 주목하고 싶은 점은 당시 막부의 영토인식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때, 고·중세 이래 일본 전체를 그린 일본도로서 유일한 行基式日本圖의 흔적이 강하게 남아있다는 점이다. 行基式日本圖¹¹⁾에 대해서는 이전 논고에서도 언급했는데 여기서 간단히 설명하면, 나라시대(奈良時代)부터 國郡圖와 함께 나타나기 시작했고, 백제계 渡來人의 자손이라고도 알려진 行基가 그렸다고 해서 行基圖라고 한다. 특히, 일본 전체의 지형과 각 지역의 구분을 곡선으로 그리고 있어 이러한 유형의 지도를 行基式日本圖라고도 한다. 여기서 「寛永日本圖」와의 비교를 위해 行基圖를 살펴보면, [지도 2]¹²⁾의 行基圖는 「大日本國圖」라고도 하는데, 14세기 무렵에 편찬된 백과사전 성격의 『拾芥抄』라는 서적에 수록된 지도이며, [지도 3]¹³⁾은 정식 명칭이 「行基菩薩說大日本國圖」로서 1630-1640년대에 작성된 行基圖이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1638년에 제작된 「寛永日本圖」와 전술한 行基圖를 비

10) 「慶長日本總圖」(日本國立國會圖書館 소장), NDL請求記号: WA46-1, 國立國會圖書館デジタル化資料, <http://dl.ndl.go.jp> [2012.04.25]. 이하 「」 부호는 검색일자를 의미하고, 고지도 안의 지명 삽입 등은 필자가 임의로 편집한 것으로 이하의 고지도들도 마찬가지임.

11) 行基圖와 行基式日本圖에 관해서는 다음의 연구를 참조. 秋岡武次郎(1972) 『日本地圖史』 河出書房, pp.3-53 ; 織田武雄(1972) 「行基圖の成立とその影響」, 『日本古地圖大成-解説』 講談社, pp.8-12 ; 福本健太郎(1999) 「行基圖系日本圖の変遷について」, 『國學院雜誌』100-6, 國學院大學 ; 黒田日出男(2003) 『龍の棲む日本』 岩波新書831, 岩波書店, 2003 ; 신동규(2012) 앞의 논문.

12) 「大日本國圖」(『拾芥抄』, 早稲田大學圖書館 소장. 請求記号: 40301827). 이 지도의 좌우 면은 『拾芥抄』에서 분리되어 있으나, 필자가 편의상 1개의 지도로 붙여서 수정함. 한편, 筑波大學附屬圖書館에도 소장되어 있다(『行基圖』, 平成19年度(2007)企劃展 「古地圖の世界-世界圖とその版本」, <http://www.tulips.tsukuba.ac.jp/exhibition/kochizu/denshi.html>[2011.07.07]).

13) 「行基菩薩說大日本國圖」(國立歷史民俗博物館 소장), 伊能忠敬研究会編(1998), 앞의 책, p.77.

교해볼 때, 『寛永日本圖』는 하천과 지역명, 도로, 해안선 등이 보다 구체적으로 그려져 있을 뿐, 行基圖에 보이는 ‘삼도영토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이다. 물론, [지도 3]에 보이는 바와 같이 고·중세의 전통적 行基圖나 行基式日本圖에 보이고 있던 전설의 雁道를 비롯해 태평양쪽에 표기된 상상의 羅刹國은 사라져 에도시대 초기 무렵부터 보다 현실적인 지리인식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¹⁴⁾ 그러나 [지도 1]과 [지도 2·3]을 비교해서 알 수 있듯이, [지도 1]은 큐슈 지역의 일부 섬과 해안선이 보다 명확해졌다는 것 이외에 혼슈의 중앙 상단에 현재 오키 제도(隱岐諸島)인 도젠(島前) 도고(島後)의 섬, 동북쪽에는 사도가시마(佐渡島), 남쪽에 이키노시마(壹岐島)와 츠시마(對馬)만이 그려지고 있어 영토인식이라는 측면에서는 ‘行基式日本圖’와 마찬가지로 고·중세의 ‘삼도영토관’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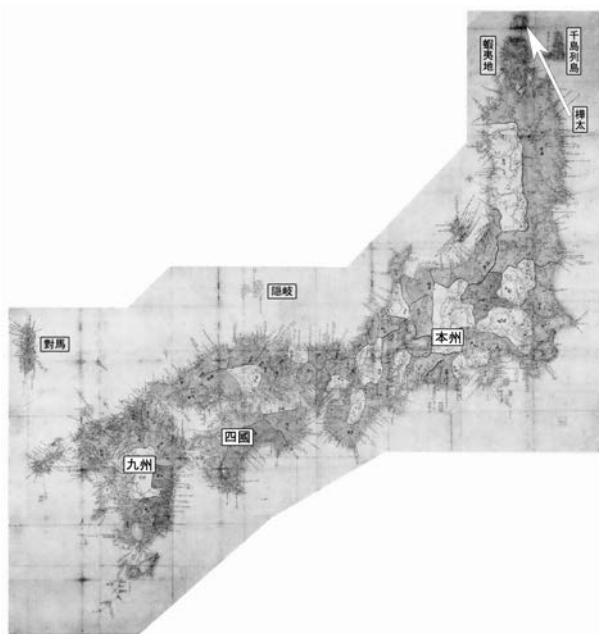
한편, 17세기에는 막부에 의해 또 하나의 관찬지도가 작성되었다. 바로 『正保日本圖』([지도 4])¹⁵⁾인데, 이 지도는 1644년 에도막부가 諸大名들에게 國繪圖의 제출을 명한 후, 수집된 각 藩의 國繪圖를 근거로 병학자 호조 우지나가(北條氏長)가 작성한 것이며, 三分一里(1/432,000)의 축척이다.¹⁶⁾ 이 지도의 특색은 전술한 [지도 1]의 『寛永日本圖』에는 명확히 표기되고 있지 않았던 항로와 해상 거리 등의 해상교통로를 비롯해 해안의 지명에 이르기까지 보다 상세히 표기되어 있고, 특히 『寛永日本圖』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에조치와 카라후토(樺太, 사할린), 쿠릴열도의 일부를 관찬지도로서는 최초로 묘사하고 있다 ([지도 5] 참조).

다만, 당시 정권의 영토인식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正保日本圖』는 『寛永日本圖』와 마찬가지로 ‘삼국영토관’의 인식이 내재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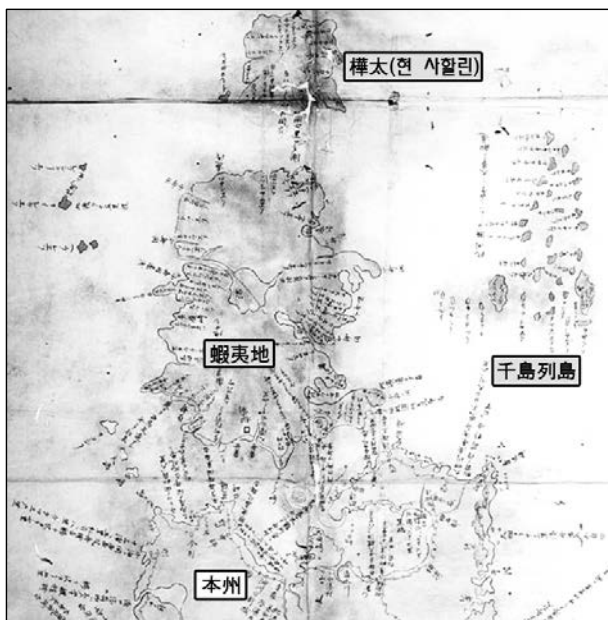
14) [지도 3]을 보면 혼슈의 북쪽에 “かりのみち、このくにかたち人にあらず(雁道. 이 나라의 형세를 보면 사람이 없다).”라고 하여 雁道가 묘사되어 있고, 혼슈 남쪽에는 “らせつこく、をんなのみあり、おとこゆきぬれはかへらす(羅刹國. 여자만이 있고, 남자는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돌아오지도 못한다.)”라고 하여 전설의 羅刹國을 묘사하고 있다.

15) 『正保日本圖』(國立歴史民俗博物館 소장), 『日本古地圖大成』19番圖, pp.38-41; 伊能忠敬研究会編(1998), 앞의 책, p.78. 原圖는 전하지 않으며, 현재 3점이 전해지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17세기 중엽에 그려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深井甚三(2006) 『幕府撰日本圖に見る近世越中の地域像』 『人間発達科学部紀要』1-1, p.226; 川村博忠(1990), 앞의 책, pp.212-220.

16) 三好唯義/小野田一幸(2004) 『日本古地圖コレクション』 河出書房新社, pp.18-19.



[지도 4] 「正保日本圖」(國立歷史民俗博物館 소장)



[지도 5] 「正保日本圖」의 에조치 확대도

그것은 [지도 4]에 보이는 바와 같이 에조치를 비롯한 북방의 일부가 묘사되고는 있지만, 에조치가 쓰시마와 비슷한 크기로 묘사될 정도로 터무니없이 축소되고 있으며, 혼슈 동북지역의 한 부속도서로서 인식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당시 에도막부는 에조치에 대해서 거의 관심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곳을 일본의 부속영토로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더더욱 아니며, 에조치의 남단에 위치한(혼슈와 인접 지역) 마쓰마에(松前) 일부 주변지역의 和人地만이 마쓰마에씨(松前氏)에 의해 지배되고 있었을 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正保日本圖』가 가지고 있는 가치, 즉 18세기까지 제작된 막부의 관찬지도 중에서 제일 정밀하고, 또 지도 제작법상 行基式日本圖에서 어느 정도 탈피하고 있다는 가치가 퇴색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18세기에 들어와서도 2회에 걸쳐 관찬지도가 제작되었는데, 바로 『元祿日本圖』(1702, [지도 6·7])¹⁷⁾와 『享保日本圖』(1717-28, [지도 8])¹⁸⁾이다. 『元祿日本圖』는 1697년 5대 쇼군 도쿠가와 쓰나요시(德川綱吉)가 國繪圖 제작을 명하여 수집된 國繪圖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축척은 四分一里(1/324,000)이며, 『享保日本圖』는 國繪圖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8대 쇼군 도쿠가와 요시무네(德川吉宗)의 명으로 『元祿日本圖』를 토대로 하여 작성된 것이다.¹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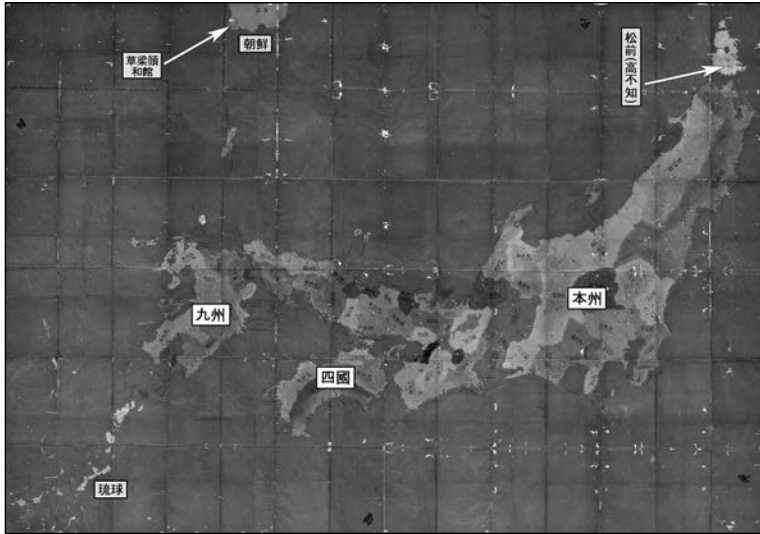
그런데, 『元祿日本圖』와 『享保日本圖』는 正保期(1645-1648) 이후의 정치적 변동에 따른 쿠니의 경계는 표기되고 있으나, 지형은 오히려 『正保日本圖』([지도 4] 참조)보다도 정확하지 않은 형태를 보이고 있다. 우선, 『元祿日本圖』는 [지도 6·7]에 보이듯이 최초로 관찬지도에 남방의 류큐 열도(琉球列島)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고, 이전의 『寬永日本圖』와 『正保日本圖』에는 없던 조선이 묘사되고 있다([지도 6·9]). 하지만, 류큐 열도와와의 거리 축척은 상당히 왜곡되었고,²⁰⁾ 조선의 경우, ‘草梁頭’와 ‘和館’이라고 하여

17) 『元祿日本圖』(異称 『元祿日本總圖』, 明治大学圖書館 소장), [http://dl.ndl.go.jp/\[2011.08.28\]](http://dl.ndl.go.jp/[2011.08.28]) ; 『日本古地圖大成』, pp.42-43. 20番圖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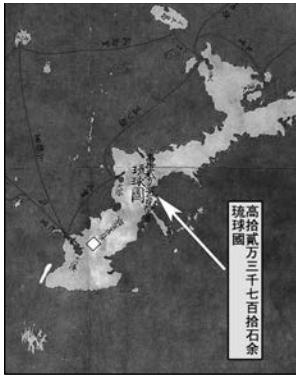
18) 『享保日本圖』(異称 『享保年度幕府撰建部賢弘日本圖』, 國立歷史民俗博物館 소장), 伊能忠敬研究会編(1998), 앞의 책, p.79.

19) 川村博忠(1990), 앞의 책, pp.221-240.

20) 류큐 열도가 『元祿日本圖』에 표기되어 있다고 해서 에도막부의 영토인식에 포함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1609년 시마즈씨(島津氏)에 의해 류큐 침공이 이루어져 류큐가 청과 일본과의 사이에서 양속관계에 있었다고는 하지만, 당시는 엄연히 국왕이 존재한 독립국이었다.



[지도 6] 『元緑日本圖』(明治大學圖書館 소장)



[지도 7] 류큐 확대도



[지도 8] 에조치 확대도



[지도 9] 조선 확대도

부산의 초량 왜관은 표시하고 있지만, 현재의 부산 위치가 아닌 호남의 서쪽 끝으로 잘못 묘사되어 있다. 북방에는 치시마 열도(千島列島)가 누락되었고, 에조치와 '가라토지마(カラト島)'로 표기된 가라후토는 『正保日本圖』와 마찬가지로 터무니없이 크기가 왜곡되어 있어([지도 6·9]) 당시 지리인식의 부정확성을 추측해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류큐 열도와 에조치 주변부는 동일한 색으로 묘사하고, 일본 내부의 규슈·시코쿠·혼슈의 三島와는 확연히 표식을 달리하고 있어 당시 일본의 영토인식에 포함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지도 10] 「享保日本圖」(國立歷史民俗博物館 소장)

다만, 한 가지 특기할 부분은 [지도 7]과 [지도 8]에 보이는 바와 같이 류큐에는 “산출량 123,710石 정도(高拾貳万三千百拾石余)”라고 石高를 기입하였고, 에조치의 마쓰마에(松前)에는 “산출량을 알 수 없다(高不知)”라고 기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당시 류큐는 1609년 이래 시마즈씨(島津氏)를 통해서, 에조치는 에도시대 초기이래로 마쓰마에씨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간접지배의 형식을 띠고 있었던 것의 표현으로 보인다. 특히, 에조치는 쌀이 생산되지 않아 마쓰마에씨는 ‘無高의 大名’이었기에 “산출량을 알 수 없다.(高不知)”라고 명기한 것으로 추측된다.²¹⁾

[지도 10]의 「享保日本圖」의 경우, 에조치와 가라후토는 「正保日本圖」·「元祿日本圖」와 같은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 치시마 열도와 류큐 열도 및 조선은 그리고 있지 않다. 지금까지 4개의 관찬지도 중에서 가장 완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이점은 전술한 바와 같이 당시 國繪圖의 제작 없이 일본도만이 제작되었기 때문이며, 항로, 도로 및 하천 등이 상세하지 않고, 또 각 지역의 石高 등

21) 마쓰마에씨의 경우는 에도시대 초기에는 에조치의 島主로서 客臣의 취급을 받고 있었으나, 5대 쇼군 쓰나요시 무렵에 하타모토(旗本)의 대우를 받았다. 또한, 쌀이 생산되지 않는 ‘無高의 大名’이었지만, 에조치에서 아이누와의 교역독점권을 인정받고 있었기 때문에 1719년부터는 1만석 격의 토자마 다이묘(外様大名, 柳間詰め)가 되었다.

도 누락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관찬지도 중에서 북방지역의 예조치를 그리고 있는 것은 『正保日本圖』·『元祿日本圖』·『享保日本圖』, 류큐를 그린 것은 『元祿日本圖』가 있는데, 형태상이나 내용상으로 볼 때, 대부분 『正保日本圖』를 모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표기사항의 특징을 정리한 것이 [표 1]이다.

[표 1] 관찬지도에 보이는 남방과 북방의 표기

지도명 \ 표사항목	남방(琉球)	북방(蝦夷地)	북방(樺太)	북방(千島列島)
『寛永日本圖』(1633·38, [지도 1])	×	×	×	×
『正保日本圖』(17세기 중엽, [지도 4])	×	○(왜곡)	○(왜곡)	○(왜곡)
『元祿日本圖』(1702, [지도 6])	○(왜곡)	○(왜곡)	○(왜곡)	×
『享保日本圖』(1717, [지도 10])	×	○(왜곡)	○(왜곡)	×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正保日本圖』 이래의 지도에서 모두 혼슈 이북의 북방지역을 그리고 있지만, 예조치 남단에 위치한 마쓰마에의 和人地를 제외하고는 당시 막부의 영토인식에 이 지역을 포함시킬 수 없다는 점이다. 『正保日本圖』 이후의 지도가 북방지역은 터무니없을 정도로 축소시키고 있으며, 류큐는 『元祿日本圖』에만 명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를 염두에 두면, 17-18세기의 관찬지도에서 고·중세의 ‘行基式日本圖’에 보이는 전설의 지역이 사라지기는 했지만, 영토인식상의 측면에서 본다면 중세 이래 ‘삼도영토관’이 기본적으로 18세기에 그대대로 계승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17세기 중엽의 『正保日本圖』를 전후로 해서 북방지역과 류큐가 경우에 따라서는 그려지기도 하고, 누락되기도 하는 현상이 보이고 있어 이를 볼 때, 18세기를 전후한 시기는 현실적 영토인식(四島領土觀)과 전통적 영토인식(三島領土觀)의 과도기적 시대였다고도 평가해 볼 수 있겠다.

Ⅲ. 19세기 「伊能圖」와 「三島領土觀」의 붕괴

한편, 일본에서 최초로 정확한 실측지도가 만들어지는데, 바로 에도시대의 상인이며 측량가이기도 했던 이노우 다다타카(伊能忠敬, 1745-1818)의 「大日本沿海輿地全圖」이다. 이른바 「伊能圖」라고도 하는 관찬지도인데, 이노우는 에도 막부의 天文方이었던 다카하시 요시토키(高橋至時, 1764-1804)의 추천을 받아 막부의 승인 하에 1800년 에조치 및 도호쿠(東北)·기타칸토(北關東) 지역의 측량을 시작으로 제10차에 걸친 측량을 실시하였으나(9차는 불참), 1818년 완성을 보지 못하고 사망하여 스승 다카하시 요시토키의 아들 다카하시 가게야스(高橋景保)가 1821년 8월 7일 완성하여 막부에 제출함으로써 완성되었다.²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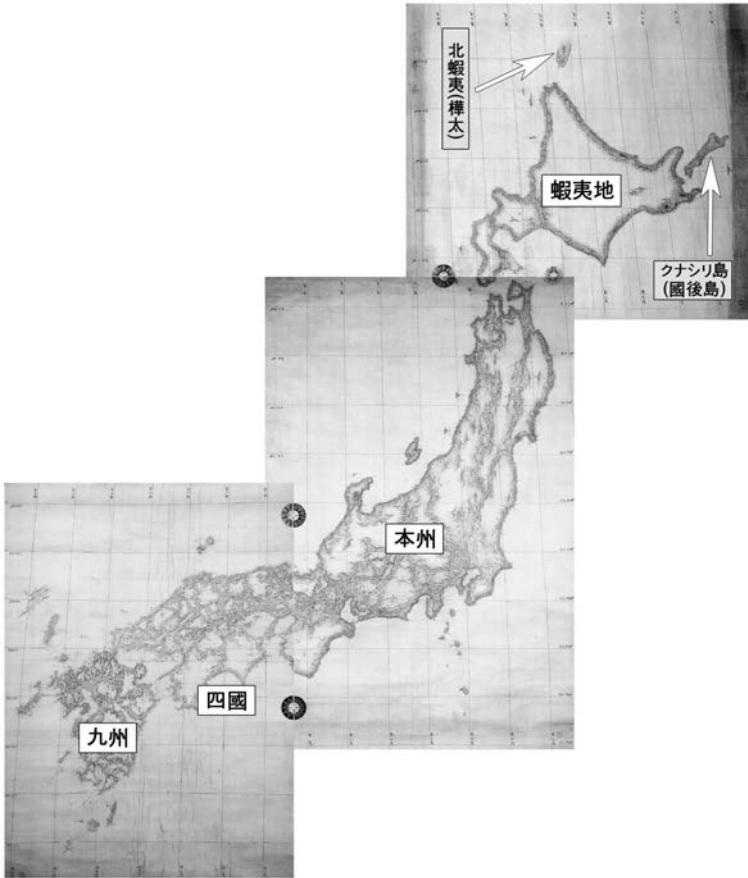
「伊能圖」는 이용의 편리를 위해 大圖(1/36,000 축척, 214매), 中圖(1/216,000 축척, 8매), 小圖(1/432,000 축척, 3매)의 3종류가 만들어졌으며, 축척에 관계없는 特別小圖(1/864,000 축척), 명승지를 그린 特別地域圖, 이즈(伊豆) 제도의 特別大圖, 江戸内圖 등을 포함하면, 알려진 것만 440종에 달한다.²³⁾ 그러나 막부에 바쳐진 원본은 1873년 皇居의 화재로 소실되었고, 이노우(伊能) 가문에 있던 控圖(副本)도 보관되어 있던 東京帝國大學附屬圖書館의 大震災로 1923년에 소실되어 사본들만 남아 있다. 본고에서는 小圖와 中圖를 이용하여 일본 전체의 모습을 살펴보겠다. [지도 11]²⁴⁾은 영국 해군수로부에 소장된 小圖의 사본 3매를 1매로 편집한 것이고, [지도 12]²⁵⁾는 東京國立博物館에 소장된 中

22) 「伊能圖」에 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하기의 연구들을 참조. 羽田野正隆(1969) 「伊能圖の評価に関する諸問題」 『地学雑誌』78-6, 東京地学協会; 保柳睦美(1972) 「伊能忠敬の測量と地圖」 『日本古地圖大成-解説』講談社; 渡邊一郎(1996) 「最近における伊能日本圖の所在と概況について」 『地圖』34-2, 日本國際地圖学会; 鈴木純子(2004) 「伊能圖の成り立ち」 『地理』49-11, 古今書院; 伊能忠敬研究会編(1998) 앞의 책, pp.97-104.; 川村博忠(1990) 앞의 책, pp.166-183..

23) 伊能忠敬研究会編(1998), 앞의 책, p.16.

24) 「伊能圖」(小圖 3매, 영국 海軍水路部 소장), 伊能忠敬研究会編(1998), 앞의 책, pp.35-37. 본 지도는 北海道·本州東部·西南部 3매의 지도를 필자 임의로 축소하여 1매로 편집한 것으로 원래 이 지도는 막말인 1861년에 일본 근해를 측량했던 영국함대가 입수한 1821년판(文政4년) 「伊能圖」이다. 한편, 「伊能圖」小圖는 東京國立博物館에도 소장되어 있다(東京國立博物館編(2003) 앞의 책, p.18.).

25) 東京國立博物館編(2003), 앞의 책, p.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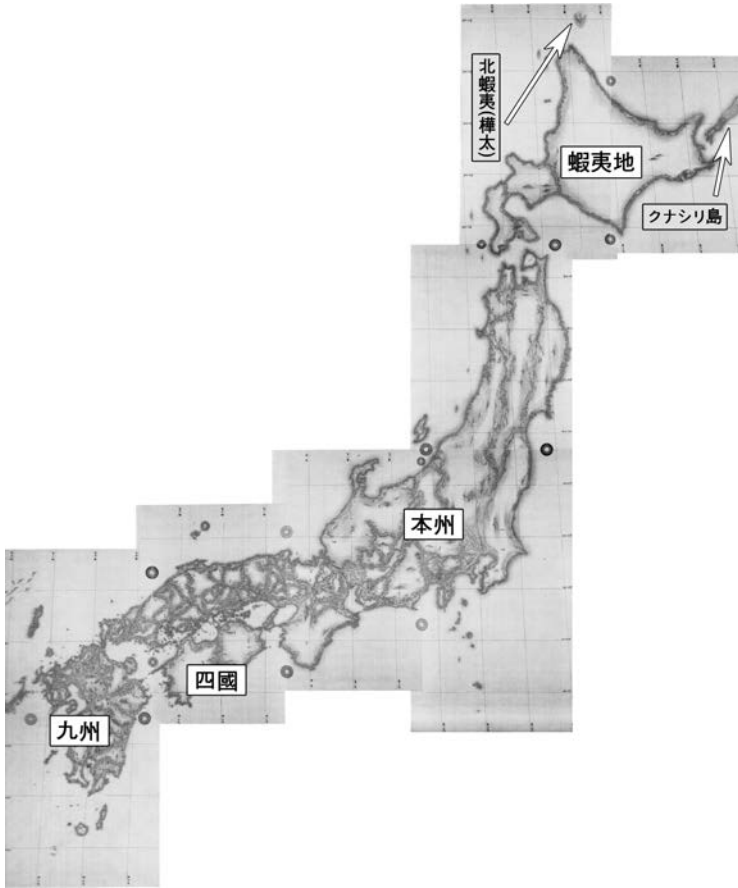


[지도 11] 『伊能圖』小圖 3매의 편집도(영국 海軍水路部 소장)

圖의 사본 8매를 1매로 편집한 것이다.

[지도 11·12]의 『伊能圖』를 보면, 이전 ‘삼도영토관’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에조치의 모습이 확실히 드러나고 있다. 더욱이 제일 북쪽에는 에조치 북단과 인접한 가라후토의 일부 모습과 함께 구나시리토(國後島)도 북동쪽에 그려지면서 일본의 영토는 크게 규슈, 시코쿠, 혼슈, 에조치라는 4개의 섬과 그 부속도서로 구성되고 있다. 류큐는 완전히 배제되어 아무런 표기도 없다는 점이 특징이기는 하지만, 일본 최초로 ‘四島領土觀’의 출현이 시작되었다고도 할 수 있는 日本全圖이다.

이러한 『伊能圖』는 전술한 바와 같이 제작되었을 당시부터 막부의 유출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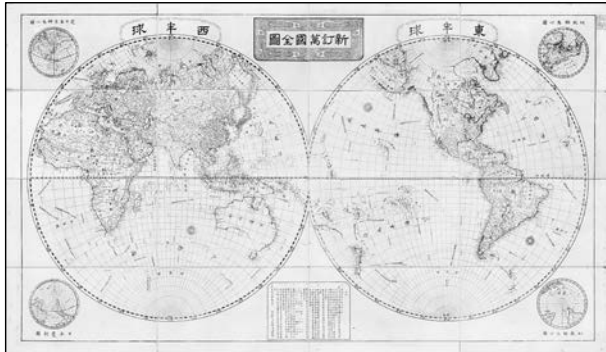


[지도 12] 『伊能圖』 中圖 8매의 편집도(東京國立博物館 소장)

에 의해 일반에 공개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일반인들의 보편적인 인식이었다고는 볼 수 없다. 『伊能圖』 유출금지의 단적인 사례가 유명한 ‘시볼트사건’²⁶⁾이지만, 이미 18세기 후반 무렵에 막부에 의한 에조지 진출계획이 실행되고 있었다는 점,²⁷⁾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전반에 걸쳐 막말의 수많은 經世論家

26) 1828년 시볼트가 일본에서 본국으로 귀국할 때 막부에서 엄금하고 있던 일본지도(『伊能圖』)를 몰래 지참하고 출국하려다가 발각된 사건으로 시볼트는 다음해에 국외 추방되었다. 이 사건으로 지도를 전해 준 다카하시 카게야스(高橋景保) 외에 다수의 문인들이 처벌되었으며, 그는 1829년 2월에 옥사했다. 옥사 후에 처벌로써 참수형이 내려져 공식적인 기록은 斬罪이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하기를 참조. 中西啓(1996) 『シーボルト事件を巡って』 『洋学』5, 洋学史学会; 梶輝行(2010) 『通説をくつがえす検証シーボルト事件』 『歴史読本』857, 新人物往來社.

27) 신동규(2010) 『赤蝦夷風説考』와 에도막부[江戸幕府]의 북방인식, 『東北亞歴史論叢』30,



[지도 13] 『新訂萬國全圖』(國立公文書館 소장)

들이 에조치에 대한 침탈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었다는 점²⁸⁾을 고려한다면, 일본의 지식인층에게서 전통적인 ‘삼도영토관’은 붕괴되고 근대적 영토 팽창의 맹아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물론 민간에서 작성된 사찬지도에 보이는 영토인식은 근세까지도 ‘삼도영토관’에 토대를 두고 한정되어 있어 막부의 영토인식과 전혀 상이한 형태로서 괴리감을 보이고 있지만,²⁹⁾ 19세기 초에 작성된 막부의 관찬지도는 러시아의 남하에 대한 위기감과 북방지역의 관심에 대한 표출로서 ‘사도영토관’을 명확하게 보이고 있어 ‘삼도영토관’이 붕괴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일본전도의 형식은 아니지만, 양반구식 세계지도로서 1807년에 제작된 『新訂萬國全圖』([지도 13])³⁰⁾에서도 일본 영토인식의 변화를 엿볼 수 있다. 이 지도는 막부의 명령에 의해 다카하시 가게야스(高橋景保)가 하자마 시게토미(間重富, 1756-1816), 바바 사쥬로(馬場佐十郎, 1787-1822) 등과 함께 1780년에 간행된 영국지도 및 마미야 린조(間宮林藏)의 가라후토 조사 정보를 가미하여 작성한 세계지도로서 1810년에는 동판화로도 인쇄되기도 한 관찬지도이

pp.186-194.

28) 신동규(2011) 『에도시대(江戸時代) 후기 일본 經世論家の 에조치(蝦夷地)에 대한 침탈적 인식 고찰』 『韓日關係史研究』39, 한일관계사학회.

29) 신동규(2012), 앞의 논문 참조.

30) 『新訂萬國全圖』(國立公文書館 소장), 國立公文書館デジタルアーカイブ, <http://www.digital.archives.go.jp> [2012.02.20]. 이외에 早稲田大学圖書館, 徳島大学部屬圖書館 등의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온라인 검색이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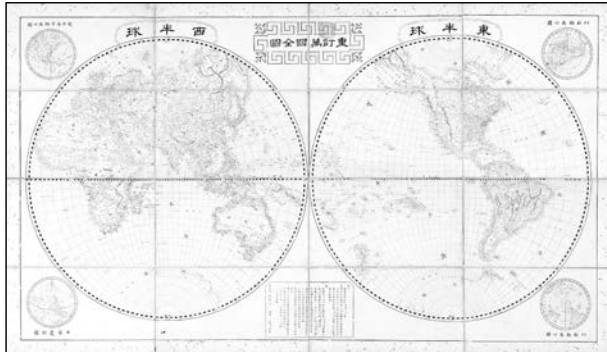
[지도 14] 『新訂萬國全圖』의 확대도

다.³¹⁾ 그런데, 이 지도의 확대도인 [지도 14]를 보면, 북방으로는 에조치를 포함해 가라후토(원문:北蝦夷), 치시마 열도의 에트로후토(澤捉島, 원문:エトロフ△), 시무시루토(新知島, 원문:シムシリ△)까지, 남방으로는 류큐를 포함해 야에야마 제도(八重山諸島)의 이리오모테지마(西表島, 원문:入表島)까지를 같은 색으로 그리며 일본을 표시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규슈, 시코쿠, 혼슈, 에조치를 비롯한 그 주변도서, 즉 ‘사도영토관’으로의 영토인식이 표출되고 있다.

그 후, 1855년에 또 다시 막부의 명령으로 아마지 유키타카(山路譜孝, 1777-1861)가 『新訂萬國全圖』를 개량하여 『重訂萬國全圖』([지도 15])³²⁾를 간행하고 있다. 이 지도의 특징은 『新訂萬國全圖』에 일본과 북미 및 호주 등의 지역에 대한 지명이 추가되어 있고, 남방은 차이가 없으나, 북방은 에트로후토까지가 일본의 영토로

31) 상동, 國立公文書館デジタルアーカイブ(絵圖)의 『新訂萬國全圖』 해제.

32) 『重訂萬國全圖』(國立公文書館 소장), 國立公文書館デジタルアーカイブ, <http://www.digital.archives.go.jp> [2012.02.20].



[지도 15] 「重訂萬國全圖」(國立公文書館 소장)

되어있을 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도영토관’의 인식을 보이고 있다. 이점은 메이지대학 소장의 다른 판본([지도 17])³³⁾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한 가지 특기할 만한 것은 [지도 14]에 보이는 바와 같이 「新訂萬國全圖」에는 한반도 동해지역에 ‘朝鮮海’라는 명칭이 붙어 있고, 태평양 쪽에는 ‘大日本海’라고 붙어 있었으나, 1855년의 「重訂萬國全圖」에는 [지도 16]에 보이듯이 ‘朝鮮海’가 ‘日本海’, 태평양 방향의 ‘大日本海’는 ‘大日本領’으로 변경되어 있다. 막말에서 근대로 갈수록 자국중심주의적인 성격이 지도에서도 강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도 16] 「重訂萬國全圖」 확대도



[지도 17] 「重訂萬國全圖」(明治大學 소장)

33) 「重訂萬國全圖」(明治大學圖書館 소장), 蘆田文庫古地圖コレクション, <http://www.lib.meiji.ac.jp/ashida/index.html> [2012.04.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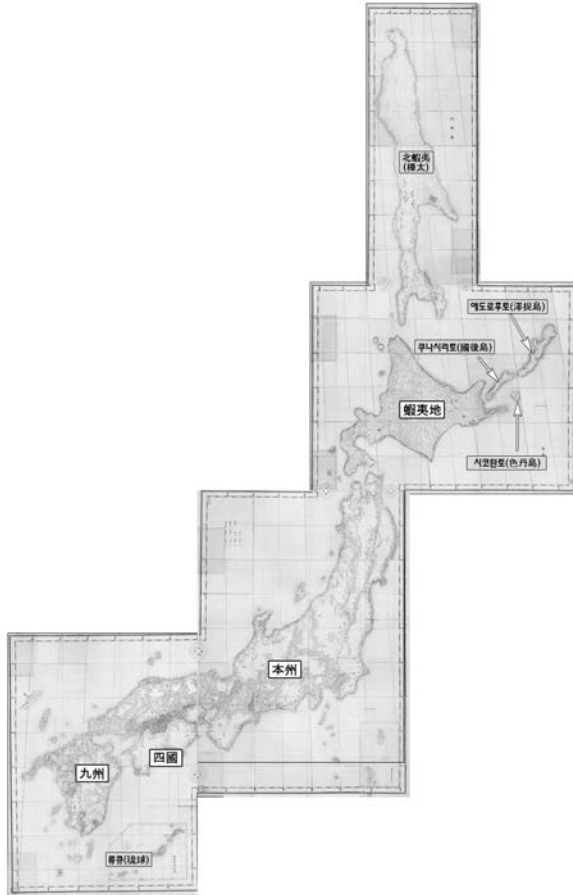
또한, 1867년의 에도막부 붕괴 직전에 이르면, 일본에서 실측지도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伊能圖』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지도가 제작되는데, 바로 『官板實測日本地圖』([지도 17])³⁴⁾이다. 이 지도는 막부의 洋學 교육연구기관인 開成所에서 출판되어 민간에 유포되기 시작했는데, 관찬지도로서 규슈·시코쿠·혼슈에 해당되는 부분은 모두 『伊能圖』의 小圖를 그대로 목판에 새긴 것이며,³⁵⁾ 『伊能圖』의 3매에 가라후토 지도 1매를 추가해 전부 4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지도를 보면 규슈와 혼슈, 시코쿠 부분은 거의 『伊能圖』를 그대로 모방하고 있지만, 에조치 부근에는 기타에조(北蝦夷)라고 불리는 카라후토가 추가되어 있고, 에토로후토(擇捉島)와 하보마이군도(齒舞群島) 및 시코탄토(色丹島) 등도 추가로 보이고 있으며, 규슈 지역의 하단부에는 『琉球諸島總圖』를 삽입해 류큐 열도를 그리고 있어 팽창된 영토인식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한국과 관련해 독도의 표기는 없으나, 북방지역의 쿠나시리토·에토로후토·하보마이군도·시코탄토는 현재 러일관계에서도 영토분쟁 지역으로서 『伊能圖』와 『官板實測日本地圖』의 관계를 염두에 둘 때, 이 두 지도는 전근대 ‘三島領土觀’ 붕괴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官板實測日本地圖』는 전근대 시기 막부가 제작한 마지막 고지도로서 근대 이후 일본의 ‘사도영토관’의 정립과 영토팽창과 분쟁의 서곡과도 같은 지도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IV. 메이지(明治)시대 ‘四島領土觀’의 정착

에도막부가 붕괴되고 메이지정부가 들어서자, 행정단위의 재편성과 지방행정의 파악을 위해 신정부는 1868년 12월 24일에 전국의 府縣·諸侯에 대해서 太政官 포고로써 이른바 『明治國繪圖』라는 지도의 작성을 명하고 있었는데, 1874년 皇居의 대화재로 수집된 대부분의 지도들은 소실되고, 현재 내각문고에 이

34) 『官板實測日本地圖』(筑波大学附属圖書館 소장), <http://www.tulips.tsukuba.ac.jp/pub/tree/kochizu.html> [2011.09.14]. 본 지도는 원래 4매로 구성되어 있으나, 필자가 임의로 축소 편집하여 1매로 작성함. 또한 伊能忠敬研究会編(1998) 앞의 책, pp.82-83.에도 江戸東京博物館 소장의 開成所版 일부가 수록되어 있다.

35) 清水靖夫(1998) 『伊能圖はいつまで使われたのか』, 伊能忠敬研究会編(1998), 앞의 책, pp.35-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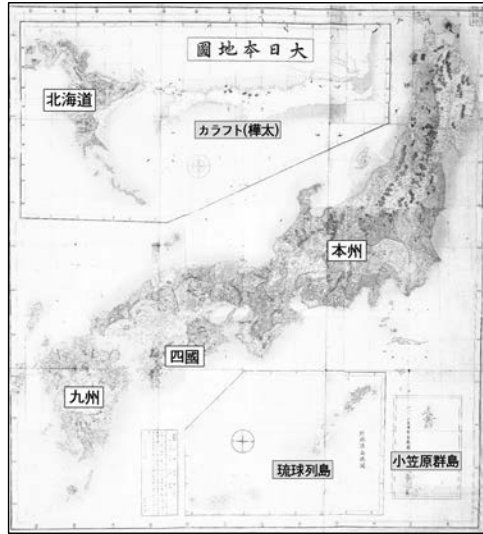


[지도 18] 『官板實測日本地圖』(筑波大学附属圖書館 소장)

당시의 지도로 생각되는 일부가 남아 있다.³⁶⁾ 다만, 그 지도는 일본전도의 형태가 아니었으며, 어디까지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지만, 이외에도 메이지 정부의 국가기관에서 편찬되거나 제작된 지도는 상당수가 현재 남아 있다.

이들 지도의 대부분은 일본 최초의 실측지도인 『伊能圖』의 상당한 영향을 받으면서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제작되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大學南校와 文部省, 그리고 1872년에는 陸軍兵學寮에 근무하기도 했던 가와카미 히로시(川上寬)가 제작한 1871년의 『大日本地圖』([지도 19])³⁷⁾가 있다. 이 지도는 『伊能圖』를 토대로

36) 川村博忠(2010), 앞의 책, pp.216-217.



[지도 19] 「大日本地圖」(國立國會圖書館 소장)

하단부에는 류큐, 상단부에는 홋카이도(北海道, 에조치는 1869년에 메이지 정부에 의해 개칭)와 가라후토(樺太)를 위치시키고 있는데,³⁸⁾ 이후 이러한 형태는 『伊能圖』를 토대로 제작하는 방식과 함께 일본전도의 기본적인 틀로 정착하게 된다. 이것은 메이지정부의 행정기관에서 간행한 관찬지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伊能圖』는 막부가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 원본은 에도막부의 붕괴와 함께 신정부로 이양되어 1870년에는 開成所에서 이름을 바꾼 大學南校에서 『官板實測日本地圖』가 재판되었고,³⁹⁾ 『伊能圖』의 원본은 전술한 바와 같이 1873년에 대화재로 소실되었지만, 1877년에는 그때까지 남아있던 控圖(副本, 小圖)를 토대로 文部省에서 『日本全圖』([지도 20])⁴⁰⁾나 『日本暗射地圖』([지도 21])⁴¹⁾ 등과 같은 지도를 제작해 교육용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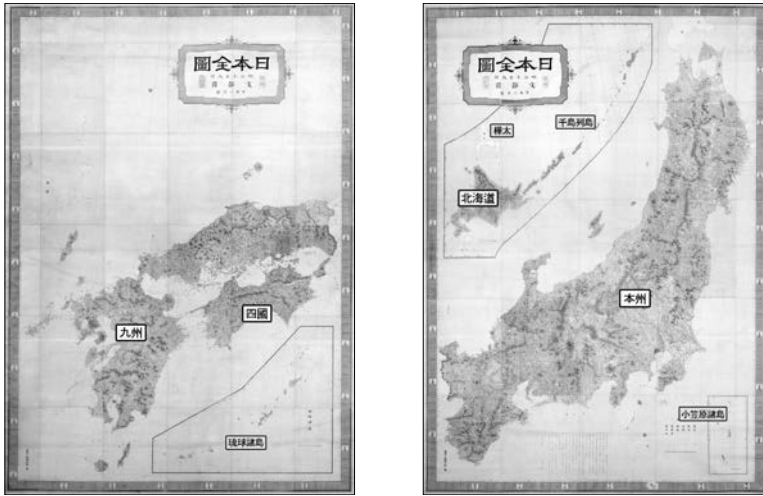
37) 『大日本地圖』(國立國會圖書館 소장), 伊能忠敬研究会編(1998), 앞의 책, p.84.

38) 가라후토를 그리고는 있지만, 그 어떤 색도 칠하지 않았고, 또 이곳에 대해서는 이후의 지도에서도 대부분 그리지 않고 있는데, 이곳에 대한 영토인식의 유무에 대해서는 금후의 과제로 삼겠다.

39) 『國史大辭典』(1979) 吉川弘文館, pp.763-764.

40) 『日本全圖(東部・西部)』2매(京都大學圖書館 소장), 近代教育掛圖, <http://edb.kulib.kyoto-u.ac.jp/exhibit/kakezu/>[2011.06.30].

41) 『日本暗射地圖』, 상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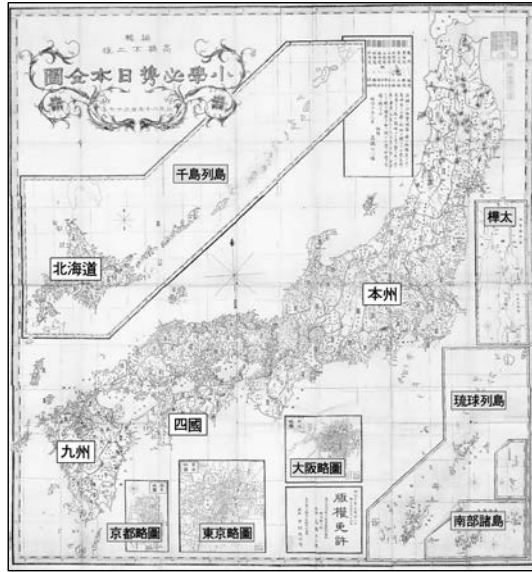


[지도 20] 「日本全圖(東部/西部)」(京都大學圖書館 소장)



[지도 21] 「日本暗射地圖」(京都大學圖書館 소장)

[지도 20]의 「日本全圖」 東部를 보면, 홋카이도는 육지와 같은 채색이 이루어져 있고, 가라후토(사할린)는 옅은 색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이것은 가라후토가 영토인식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캄차카 반도를 제외한 치시마 열



[지도 22] 『小學必携日本全圖』(國立國會圖書館 소장)

도까지도 육지와 같은 색으로 채색되어 있어 홋카이도의 부속도서라는 영토인식의 한 단상을 엿볼 수 있다.

또한 西部의 남단에는 류큐 열도를 삽입하고 있는데, 야에야마 제도의 요나 구니즈마(與那國島)까지를 영토로 포함시키고 있어 동부와 서부를 합쳐서 보면, ‘사도영토관’, 즉 규슈, 시코쿠, 혼슈, 홋카이도 및 이들 섬의 부속도서로서 일본의 영토를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형식의 지도제작은 메이지 정부에 들어와 각계각층에서 이루어져 일련의 ‘지도제작 붐’이 일어났다. 內務省地理局員이었던 다카하시 후지오(高橋不二雄)가 소학생의 교육용지도로서 『伊能圖』를 기본으로 해 1877년에 간행한 『小學必携日本全圖』([지도 22]),⁴²⁾ 같은 해 육군참모국에서 제작한 『大日本全圖』([지도 23]),⁴³⁾ 1883년 內務省地理局에서 제작한 『大日本國全圖』([지도 24])⁴⁴⁾ 등은 모두 지도의 상단에 홋카이도와 쿠릴열도, 하단에 류큐 열

42) 『小学必携日本全圖』(國立國會圖書館 소장), 伊能忠敬研究会編(1998), 앞의 책, p.85.

43) 『大日本全圖』(國立公文書館 소장), 內閣文庫, 請求番号:177-0285, 陸軍參謀局 木村信卿 作.

44) 『大日本國全圖』(京都市大學圖書館 소장), 近代教育掛圖, <http://edb.kulib.kyoto-u.ac.jp/exhibit/kakezu/> [2011.06.30].



[지도 23] 「大日本全圖」(國立公文書館 소장)



[지도 24] 「大日本國全圖」(京都大學圖書館 소장)

도 내지는 오가사와라제도(小笠原諸島)를 위치시키고 있으며, 중요 도시, 즉 도쿄, 교토, 오사카 등을 지도의 여백에 삽입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지도제작의 형태가 이후 일본전도의 전형으로서 고착되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여기에 '사도영토관'이 완전히 고착되어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內務省地理局에서는 1880년에 이노우가 제작한 『伊能圖』의 中·小圖를 토대로 1/864,000의 『大日本全圖』를 간행하였고, 육군참모본부 측량국(일본 국토지리원의 전신)에서는 1884년에 『伊能圖』의 大·中圖를 이용해 『輯製20萬分1圖』를 제작하면서⁴⁵⁾ 근대로 이행하고 있다. 이후 육군참모본부의 육지측량부가 중심이 되어 1945년 패전에 이르기까지 지도를 제작하게 되는데, 제국주의와 침략주의에 입각한 영토 팽창을 거듭하면서 육군참모본부가 지도 제작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시의 지도제작은 군사적 측면이 강했다는 것도 추측해 볼 수 있다.

끝으로 본고의 논제에 입각해 본 장을 정리해본다면, 『伊能圖』 이후 일본에서는 四島, 즉 지도의 중앙에는 규슈, 시코쿠, 혼슈를 위치시키고, 상단에는 홋카이도와 쿠릴열도, 하단에는 류큐 열도를 위치시키는 ‘사도영토관’이 기본적인 영토인식으로 메이지 초기부터 정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사도영토관’은 이미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사찬지도와 관찬지도의 영토인식의 차이, 또 막부에 의한 『伊能圖』의 유출금지 등으로 인해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국가 권력에 의한 영토인식이라는 측면에서 한정해 본다면 『伊能圖』가 만들어진 19세기 초부터 일본에 출현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V. 結論

본고에서는 에도시대부터 메이지시대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관찬지도를 토대로 삼아 일본의 영토인식의 변화를 전근대 ‘삼도영토관’의 붕괴와 ‘사도영토관’의 정착이라는 점에서 규명한 것으로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의 논점은 에도막부의 관찬지도로서 일본전도는 18세기까지 『寬永日本圖』, 『正保日本圖』, 『元祿日本圖』, 『享保日本圖』의 4종류가 순차적으로 작성되었는데, 이들 지도의 영토인식은 기본적으로 규슈, 시코쿠, 혼슈와 그 부속도서라는 ‘삼도영토관’에 근거했지만, ‘사도영토관’으로 변화되는 과도기적인 위치

45) 각주 39)번 참조.

를 접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1633년에 제일 먼저 작성된 『寛永日本圖』는 완전한 ‘삼도영토관’에 머물러 있었지만, 17세기 중엽의 『正保日本圖』에는 미약하나마 북방지역의 에조치 등이 그려지고 있었으며, 18세기에 들어와서의 『元祿日本圖』와 『享保日本圖』는 『正保日本圖』를 모방하고 있어 ‘삼도영토관’에서 ‘사도영토관’으로의 동요를 보이고 있었다. 그렇지만, 『正保日本圖』를 비롯해 그 이후의 관찬지도에 그려진 에조치를 포함한 북방지역은 터무니없이 왜곡되어 있었고, 류큐는 『元祿日本圖』만이 왜곡된 상태로 그렸을 뿐, 당시 이들 지역에 대한 완전한 영토인식이 막부에 내재되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환언한다면, 17-18세기는 ‘삼도영토관’에서 ‘사도영토관’으로 이행하는 과도기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일본 최초의 실측지도인 이노우 다다타카의 『伊能圖』 제작과 ‘삼도영토관’의 붕괴에 관련된 문제이다. 『伊能圖』는 1800년-1821년에 제작된 막부의 관찬지도로서 지도의 상단에 에조치 전체, 그리고 가라후토의 일부분 및 쿠나시리토를 그리고 있어 지도 그 자체만으로 보면 완전한 ‘삼도영토관’의 붕괴를 보이고 있으며, 일본 최초로 ‘사도영토관’이 출현된 지도이다. 하지만, 『伊能圖』는 어디까지나 일반에 공개가 금지된 막부용의 지도였고, 실제로 민간에는 ‘삼도영토관’에 입각한 사찬지도들과 장식용 지도들이 에도시대 말기까지 유행하고 있었다. 즉, 민간의 영토인식과 국가권력의 영토인식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었으며,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에도시대의 사찬지도와 관찬지도들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에도막부 마지막 지도인 1867년에 간행된 『官板實測日本地圖』가 갖는 역사적 의미에 대한 문제이다. 이 지도는 『伊能圖』를 토대로 작성되었는데, 가라후토 전부가 추가되어 있고, 『伊能圖』에 보이고 있던 쿠나시리토를 포함해 현재 러시아와의 영토분쟁 지역인 에토로후토(澤捉島)·하보마이군도(齒舞群島)·시코탄토(色丹島) 등도 추가로 보이고 있으며, 실측된 일본전도로서는 최초로 류큐를 삼입하고 있다. 『官板實測日本地圖』는 『伊能圖』와 함께 일본의 ‘삼도영토관’ 붕괴에 종지부를 찍은 지도였으며, 특히 막부가 제작한 마지막 고지도로서 이후 일본의 영토팽창과 분쟁의 서곡과도 같은 지도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넷째, 에도막부 붕괴와 함께 전근대 영토인식으로서 ‘삼도영토관’은 메이지 정부의 성립과 함께 ‘사도영토관’으로 변화되었고, 이와 함께 전근대 지도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형식의 지도가 제작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즉, 근대 이후의 지도에는 중앙에 규슈, 시코쿠, 혼슈를 위치시키고, 상단에는 홋카이도와 치시마 열도, 하단에는 류큐 열도를 위치시키는 규슈, 시코쿠, 혼슈, 홋카이도 중심의 ‘사도영토관’이 형성되었는데, 이것은 현대 일본인의 영토관념이 근대의 시작과 함께 잉태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현대에 들어와 일본의 영토분쟁의 근원은 자신들의 영토가 규슈, 시코쿠, 혼슈, 홋카이도를 중심으로 한 부속도서(쿠릴열도와 류큐열도를 포함)라고 하는 ‘사도영토관’으로의 변화에 있었다는 것을 상정할 수 있다.

끝으로 일본의 관찬지도와 사찬지도에 보이는 현재의 문제 지역, 즉 현재 러시아와의 북방 4개 지역(쿠나시리토·에토로후토·하보마이군도·시코탄토), 한국과의 독도, 중국·대만과의 釣魚島 제도, 이외에 오키노토리시마(沖ノ鳥島)나 미나미토리시마(南鳥島)에 대한 영토인식에 대해서는 본고에서 다루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금후의 과제로 삼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 신동규(2010) 『「赤蝦夷風説考」와 에도막부[江戸幕府]의 북방인식』 『東北亞歴史論叢』30, 동북아역사재단.
- _____ (2011) 『에도시대(江戸時代) 후기 일본 經世論家の 에조지(蝦夷地)에 대한 침탈적 인식 고찰』 『韓日關係史研究』39, 한일관계사학회.
- _____ (2012 출판예정) 『일본의 私撰地圖로 본 전근대 ‘三島領土觀’에 대한 고찰』 『전근대 일본의 영토인식』 동북아역사재단.
- 秋岡武次郎(1972) 『日本地図史』 河出書房.
- 伊能忠敬研究会編(1998) 『忠敬と伊能図』 [株]アワ・プランニング.
- 海野一隆/織田武雄/室賀信夫/中村拓(1972) 『日本古地図大成』 講談社.
- 織田武雄(1972) 『行基図の成立とその影響』 『日本古地図大成-解説』 講談社.
- 梶輝行(2010) 『通説をくつがえす検証シーボルト事件』 『歴史読本』857, 新人物往来社.
- 神奈川県立博物館編(1997) 『世界のかたち日本のかたち-渡邊紳』 神奈川県立博物館, 1997.
- 神戸市立博物館編(1994) 『古地図セレクション-神戸市立博物館』, 神戸市スポーツ教育公社.

- 川村博忠(1990) 『国絵図』, 吉川弘文館.
- _____ (1998) 『江戸初期日本総図再考』 『人文地理』50, 人文地理学会.
- _____ (2010) 『江戸幕府の日本地図』, 吉川弘文館.
- 清水靖夫(1998) 『伊能図はいつまで使われたのか』 伊能忠敬研究会編, 『忠敬と伊能図』 [株],
アワ・プランニング.
- 黒田日出男(2003) 『龍の棲む日本』 岩波新書831, 岩波書店.
- 黒田日出男/メアリ・エリザベス・ベリ/杉本史子編(2001) 『地図と絵図と政治文化史』, 東
京大学出版会.
- 鈴木純子(2004) 『伊能図の成り立ち』 『地理』49-11, 古今書院.
- 東京国立博物館編(2003) 『江戸開幕400年記念特別展-伊能忠敬と日本図』, 東京国立博物館.
- 中西啓(1996) 『シーボルト事件を巡って』 『洋学』5, 洋学史学会.
- 西岡虎之助(1976・77) 『日本荘園絵図集成(上・下)』, 東京堂.
- 羽田野正隆(1969) 『伊能図の評価に関する諸問題』 『地学雑誌』78-6, 東京地学協会.
- 深井甚三(2006) 『幕府撰日本図に見る近世越中の地域像』 『人間発達科学部紀要』1-1.
- 福本健太郎(1999) 『行基図系日本図の変遷について』 『国学院雑誌』100-6, 国学院大学.
- ブルース・バートン(2000) 『日本の「境界」-前近代の国家・民族・文化』, 青木書店.
- 保柳睦美(1972) 『伊能忠敬の測量と地図』 『日本古地図大成-解説』, 講談社.
- 三好唯義/小野田一幸(2004) 『日本古地図コレクション』, 河出書房新社.
- 渡邊一郎(1996) 『最近における伊能日本図の所在と概況について』 『地図』34-2, 日本国際地
図学会.
- 『国史大辞典』(1979) 吉川弘文館.

- ❖ 투고일 : 2012.06.30
- ❖ 심사일 : 2012.07.24
- ❖ 심사완료일 : 2012.08.06